

한라인터뷰 기상 관측 100년 맞은 제주지방기상청 전재목 청장

“제주, 날씨예보 거대한 실험실”

1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양한 날씨 기록 농업·관광분야 등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집중

2023년은 제주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10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이다. 이는 부산과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기록이며 6·25 전쟁 등으로 인해 관측이 중단됐던 지역도 있어 1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씨를 관측한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을 만나 제주기상 100주년의 의미와 제주기상청의 역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재목 청장이 제주기상청 기상 관측 100년과 관련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전 청장은 “제주기상 100주년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큰 영광”이라며 “제주지방기상청은 도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기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100주년을 계기로 더욱 발전된 기상·기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예보관 출신인 전 청장은 이전에도 제주에 5년가량 근무하며 제주에 대한 애착과 제주 날씨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는 “예보관 시절 개인적으로 제주의 날씨를 많이 기록했다. 언젠가 책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후배들에게 예보 노하우를 전수해 주려고 시작한 작업”이라며 “한라산에 눈 구경을 하기 좋은 때는 언제인지, 무지개나 낙조를 관찰하기 좋은 날씨 등 재미있는 요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 제주에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이 있다. 이런 환경적 영향 때문인지 그 어느 지역보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제주도민의 일상과 날씨의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전 청장은 “제주는 해양과 산악이 혼재돼 있어 동서남북 지역별로 날씨가 다르고 고도별로도 다른 특징을 보인다”며 “그만큼 날씨를 예보하고 분석하는 일이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예보 기법을 개발하고 있어 예보관들에게 제주는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역에 특화된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레길 날씨 예보나 중산간 기상특보 구역을 분리해 조금 더 세밀한 예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해 시기별 기후값을 제공하는 ‘농민 달력’도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제주지방기상청은 양돈장의 악취 저감을 위해 날씨별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양돈장 악취 문제도 연구하고 있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에 안개나 적설 등으로 기상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발작물 기상정보, 월동채소 기상정보, 어선 안전을 위한 해양 기상정보, 영도폭포·사라오름 등 관광지 기상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의 업무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고 하자 전 청장은 “날씨와 관련해 안 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며 웃었다.

제주지방기상청이 관측한 오늘의 제주 날씨는 역사의 기록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 청장은 강조했다.

전 청장은 “제주의 다양한 날씨 정보를 관광, 농업 등과 매칭시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과 협업하기를 바란다”며 “100년의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높은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 9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높은 파도에 서핑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서울대·의대 수도권 학생 쏠림 심각

국회 교육위원회 합격자 출신지 분석… 작년 제주 15명 입성

서울대와 전국 의대 입학생 출신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2028년 대입개편을 통해 지방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일 국회에서 최근 4년간 서울대 및 전국 의대 신입생들의 출신지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대의 63.4%와 전국 의대의 45.8%에 달하는 학생이 수도권 출신임을 확인했고 심지어 정시 전형에서는 서울대와 전국 의대 학생 5명 중 1명 이상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심각한 교육 격차가 수도권 쏠림과 지역 위기를 가중시키는 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 2020학년도 63.7%, 2021학년도 63.4%, 2022학년도 64.6%로 4개년 평균 63.4%의 학생이 서울·경기 출신이었다.

전국 의대도 2019학년도 44.2%, 2020학년도 46.5%, 2021학년도 46.4%, 2022학년도 46.3%로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2022년 서울대와 의대 신입생의 정시전형 출신지역 분석 자료를 보

면 제주 학생은 4명이 서울대에 입학했으며 전국 의대는 11명이 진학했다. 이 기간 강남 3구는 235명의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하고 240명의 학생이 전국 의대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지역 소멸의 위기를 진심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도 확실한 방안을 2028 대입개편에 담아내야만 한다”며 “국민들은 ‘이제는 지방시대’를 외친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약속을 따라 ‘강남 출신 전성시대’를 극복하고 ‘이제는 지방시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란색 횡단보도”

제주자치경찰단, 도내 3개 초등학교 시범 도입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시범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시인성이 높은 노란색 횡단보도 및 기종점 노면 표시를 시범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범도입은 최근 30km 속도

제한, 무인단속장비 확대 설치 등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범도입 장소는 한라초, 삼화초, 삼성초 등 3개소이며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3건 이상) 장소로 모두 횡단보도에서 보

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3월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해당 구간은 최근 무인단속장비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했는데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노란색 횡단보도를 통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교통사고 기록 조작 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인적사고를 물적사고로 꾸며

현직 경찰관이 교통 사고 기록을 약 1년 간 조작하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A(33)경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경장은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1개월 간 인적피

해가 있는 교통사고 14건을 단순 물적피해만 있는 사고인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 처리 과정이 복잡하지만 물적 피해 사건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산정보를 입력한 다음 결재만 받으면 되어 업무가 편리하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민기자

**한라일보 창간 34주년을
제주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SINCE 1989
한라일보 34주년

“더 나은 제주의 내일을 위해
항상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회장 **고정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부 회장 김혜란 박경란 박명순 백희순 송문자
오복진 임숙자
특별부회장 이금숙
총무이사 김지영
이사 김순여 김애란 김윤희 김현희 양은주
오은희 최연수 한영미 현정숙
특별이사 강옥선
감사 김희진 안정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15길 23 선우빌딩
T.(064)726-6008 F.(064)758-6008